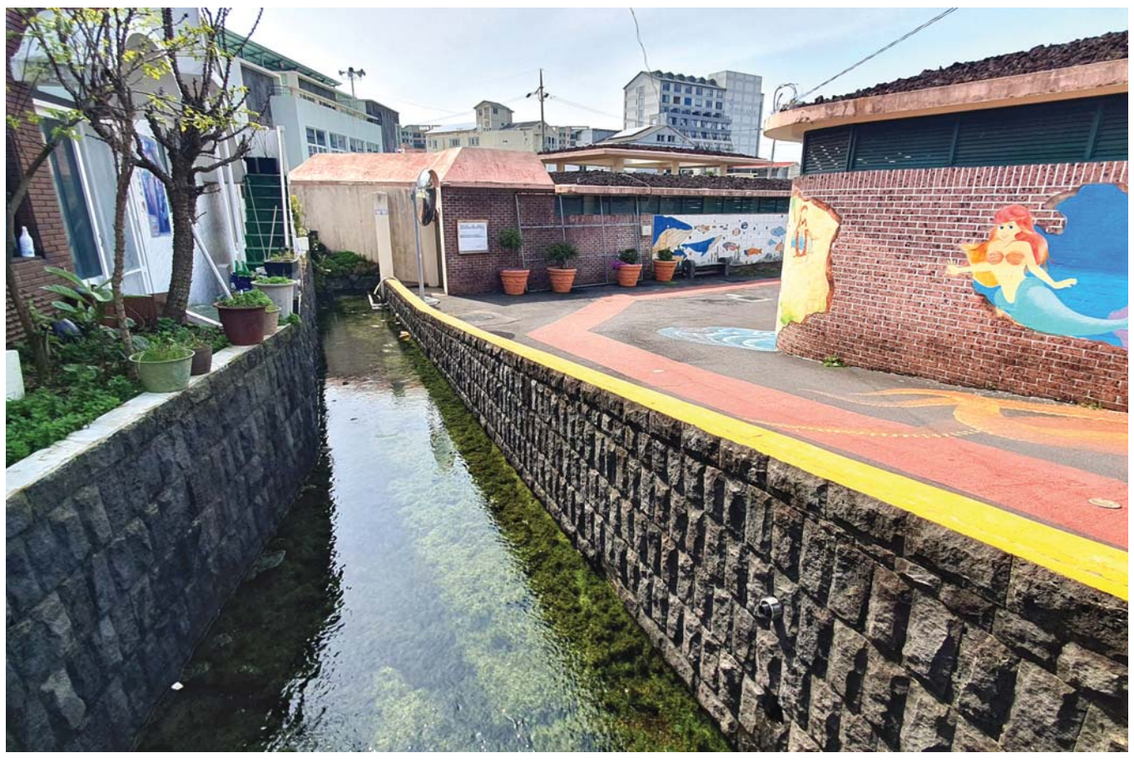
도두봉은 아이누어와 고구려어 복합기원

제주시에 위치한 도두봉과 도두동, 도두봉 오른쪽 마을 중앙에서 오래물이라는 샘이 솟는다.



도두동 마을 안을 흐르는 오래물 물골, 이 건물들은 샘물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김찬수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78〉

3부 오름

(37) 도두봉은 펑펑 솟아나는 샘 '오래물'과 연관

도두봉의 근원지명 '도돌오름'은 무슨 뜻?

도두봉은 제주시 도두동 산1번지다. 표고 65.3m, 자체높이 55m다. '세종실록'에 도도리산(道道里山),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도도리악((道道里岳), 도도리악봉수,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 등에 도원악(道圓岳), 그 외 문헌에 도원망(道圓望), 도두봉(道頭烽), 도도봉(道道烽), 조두봉(鳥頭峰)으로 나온다. 지역에서는 도도오름(渡道오름), 도돌오름, 도두리, 도들봉, 도들오름, 도원봉으로도 부른다. 오늘날 지도에는 도두봉(道頭峰)으로 표기했다.

이 오름 이름들 역시 그 유래가 분분하여 종잡을 수 없기는 다른 오름들과 매 한가지다. '도도록히 도드라졌다는 데서 유래한다'는 설명이 있다. 어떤 이는 색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산정은 대부분 분화구로 함몰되어 있는데, 이 산봉우리는 그것이 없고, 오히려 '봉우리의 모습이 볼록하게 뾰족하여 웅봉(雄峰)이라는 뜻, 즉, 남근으로 보인다'라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아마 '도두' 혹은 '조두'에서 남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연상했던 것 같다.

'도돌'이라는 이름에서 '도도록하다'라는 말이 쉽게 떠오르는 것 같다. 또 다른 저자도 이러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제주어에서도 '도ᄃᆞ록ᄒᆞ다'라는 말로 '도도록하게 내밀거나 드러나다'라는 뜻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둥글다'의 뜻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마을 가운데서 솟아 폭포처럼 바다로 떨어지는 샘물

과연 이런 오름 이름 유래는 타당한 주장일까? 이 오름의 이름들을 모아보면 도도리산(道道里山), 도도봉(道道烽), 도돌오름, 도도오름(渡道오름), 도두리, 도두봉(道頭峰), 도들오름, 도원악(道圓岳), 조두봉(鳥頭峰) 등 9개 정도가 추출된다. 이중 조두봉(鳥頭峰)은 도두봉(島頭峰)의 오기로 본다는 입장이 있다. 이 이름을 제외하면 8개이다.

여기에서 도원악(道圓岳)의 원(圓)은 '두리 원'이므로 역시 '도두리악'의 다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도리산, 도돌오름, 도두리, 도둘오름 등과 함께 '도두리악'으로 수렴함을 추정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이름 도도봉, 도도오름, 도두봉의 표기도 'ㄹ' 혹은 '리'가 생략된 형태일 뿐 결국 같은 표기라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들 모두 하나로서 '도돌'을 표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도두봉(道頭峰)으로 표기하고 지칭하는 오름은 과거엔 '도돌오름'이었으며, 그보다 고어형으로 본다면 '도돌올'로 지칭했을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려고 고심한 끝에 나온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 오름이 있는 마을은 도두동이다. 이곳은 여러 군데서 물이 솟아난다. 그야말로 땅속에서 흐르던 물이 지표면을 뚫고 펑펑 솟는다. 곳곳에 식수로 이용하는 곳, 채소 씻는 곳, 여탕, 남탕, 빨래하는 곳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한 샘들이 즐비하다. 또한, 마을 가운데서 솟아 나와 바다로 쏟아져 떨어지는 샘물은 마치 폭포수같이 수량이 많다. 이 마을과 이 오름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맑고 시원하며 폭포같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특징이다.

도돌오름은 물오름, 오래물은 샘물

그러므로 이 오름 이름에서 보이는 도돌오름이란 '도+돌+오름'이라는 점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돌오름'이란 토산의 지명에서도 봤고, 안돌오름, 밧돌오름, 감낭오름 혹은 원물오름에서도 봤다. 여기서 '돌'이란 물이라는 뜻이다. 이 오름의 이름에 들어있는 '돌오름'이라는 것도 같은 뜻이다. 즉, 물오름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이 '돌오름'에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있는 '도'가 무엇인가이다. 이 '도'란 '못' 혹은 '호수'를 의미하는 말이다. 아이누어 기원이다. '돌'과 거의 같은 의미다. 따라서 아이누어를 쓰는 언어집단이 먼저 '도올'이라 했던 것을 이후 '돌'이라 하는 집단이 들어와 여기에 '돌'을 덧붙여 '도돌오름'이라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첩어가 되어 '물물오름'이라는 뜻이 된다. '돌'이라 했던 집단은 한반도 북방의 퉁구스어에 고어형이 남아 있고, 이후는 우리 중세어에서 똑같이 '돌'이라 했다. 본 기획 73회 '토산지명'을 참조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도두동에 있는 샘을 '오래물'이라고 하는데 왜 토산처럼 '돌'이라 하지 않는가? 우리 고어에 샘을 '얼'이라고도 했다. 이것은 고려 시대에 나온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천정구현일운어을매곶(泉井口縣一云於乙買串)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천정구현은 어을매곶이라고도 한다'는 뜻으로 고려의 천정구현은 고구려 때에는 어을매곶이라고 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샘(泉)을 그보다 더 옛날에는 어을(於乙)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어을'이 한글 표기처럼 딱 부러지게 '어을'이라고만 발음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얼', '엘르', '어르' '어러' 등 여러 가지로 읽었다. 제주도에서는 '어리목'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 혹은 '어리'로 발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물'의 '오래'란 이 발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래물'은 '샘물'이라는 뜻이다. 북방 고구려어 계통의 언어집단이 남긴 유산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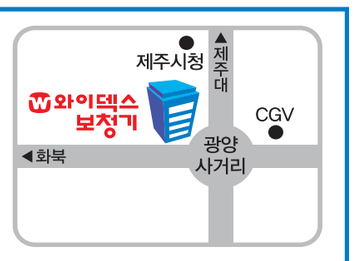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수료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